

사설

한국불교종립학교연합회가 중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종교학 교과서 증에서 불교용 교과서를 편찬하여 서울시 교육위에 검인정을 신청했다고 한다. 그동안 종교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각 종교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내용의 교재가 있었다.

근대적인 학교교육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유입과 함께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수백여 곳에 이른다.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는 선교적 사상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기 위해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교의 입장도 당시의 대다수 단체와 비슷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새

로운 교육과정을 수용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모색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근대교육제도는 서구의 역사적 산물이며, 사상적으로도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은 그 역사성이나 방법론 상에서 기독교계에 현격하게 뒤질 수밖에 없었다. 조사된

다. 특히 종교가 무엇이며, 종교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전문 종교학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점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서구 일변도의 종교학 연구 경향은 유일신교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압입하여 강조하는 효교론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일방적인 종교의 우월성 강조나 관념적 우상에 사로잡힐

작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역사나 종단의 당시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같은 국립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게 한 것이다. 학교교육이 단순한 이익추구가 아니라 종교적 이상을 전파하는 목적사업이며, 사회의 통일을 양성하는 곳이란 점을 상기한다면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검인정 불교교과서 편찬을 계기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끊임없는 개발과 투자를 통하여 보다 질 높은 불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단 내외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탕이 제대로 된 인간을 양산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은 3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를 가르칠 훌륭한 교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불교를 가르칠 종교교사가 부족하다니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건강한 종교’ 교실서 뿌리내리자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대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보면 근대화 이후의 한국불교는 오욕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서구화를 추구하는 국가시책에 짓눌려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다. 이런 점은 학교교육에 있어서도 불합리하게 감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선

높은 불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종단 내외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바탕이 제대로 된 인간을 양산할 때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진다는 점은 3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불교를 가르칠 훌륭한 교사 양성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불교를 가르칠 종교교사가 부족하다니 할 말을 잊을 수밖에 없다. 그에 대한 대책수립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열린 마당

종교교사

교단의 목소리

김형중 <영성여고 교법사>

자격취득 방법

東大 특별전형등 종단차원 해결을

교직과정·서울대 위탁교육 거쳐야

종립학교에서 교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법사들은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만 자격을 갖추고 있을 뿐이다.

제6차 교육과정의 의하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종교대학에서 종교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에서는 종교교사와 검인정 종교교과서가 없는 학교에서 자유선택으로 종교교과목을 실시하고자 회의를 해와도 법적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각 불교종립학교가 지금까지 관련대인 교육위원회의 묵인하에 정식교과목이 아닌 변칙으로 계속해서 교학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종교(불교)교육은 법적인 구비조건과 자격증을 갖추고 실시하는 것이 떼떽하고 바람직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쓸데없이 교육위원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종교교육을 하는데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의지대로 종교교육을 하기 어렵게 된다.

우리 교법사들이 종교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었던 원인은 특히 지방학교에 근무하는 교법사가 1년동안 휴직하고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등록금을 개

인적으로 180만원을 내야 하는 현실적 상황 때문이다.

앞으로 다시 우리 불교종립학교 교법사들만을 위한 종교교과목 임시교원양성소가 개설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종단이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종단이 교육부 당국과 건의 협의하여 종교교과목 임시양성소를 동국대학교에 위탁하여 동국대학교가 연수를 담당하여 교법사들을 교육시켜 종교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교법사들의 직적 향상과 재교육의 차원에서 종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종교교육과에 특별전형하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종교교사 자격증과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케 하는 것이다.

청소년포교는 미래 불교의 자화상이다. 청소년 포교의 중심적 역할은 당연히 전국의 불교종립학교가 담당해야 하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사람은 교법사들인 것이다. 종단의 관심을 촉구한다.

종교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음에 따라 종교교과목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졌다. 교육부도 종교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인정함에 따라 종교교사 자격취득교원이 교육함으로써 선택과목제도를 정착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종교교사의 필요성도 커진 것이다.

종교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종립대학에서 해당 종교학과와 교직과정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 종교교육학과를 전공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 과정을 거친 종교교과목 담당교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종교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기 이전부터 종립학교에서는 종교교과목을 성직자나 국민윤리담당교사가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신교와 천주교는 발빠르게 대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에서 종교교과목 임시기원양성소를 교육부에 건의, 교과목 신부 등 종교담당 무자격강사들에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개신교와 천주교의 건의에 따라 지난 91년과 올해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에 위탁 각각 104명과 63명을 1년과정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종교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불교종립학교 교법사는 4명이며, 현재 3명이 과정을 이수중이다. 개신교 천주교는 100명이 자격을 취득했으며, 60명이 과정이수중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종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조치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특별과정이 있음에도 불교교계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종립학교의 지원부족이다. 180만원의 등록금을 보조할 만큼 재정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지방소재 종립학교에서는 이 과정이수생에 대해 교사의 휴직과 이에 따른 교원을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시론

8.15에 그려 본 민족의 비원

광복 50주년이 되는 날 천지의 물과 백록담의 물을 합수하려던 계획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현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라도 통일을 향한 민족의 비원을 그려보자는 뜻만...

일제의 강압으로부터 풀려난 지 50년을 맞은 것은 엄청난 현실이다. 그러나 해방이 곧 광복인지는 그 뒤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그렇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해방이 되었지만 조국은 둘로 갈렸고 민족은 분열된 가운데 대결을 계속해 왔다. 세계 어느 곳도 자유로이 갈 수 없는 곳이 없는데 가장 가깝고도 하나의 생활권이여야 할 남북간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 민족은 적대적인 체제와 의식, 사상속에서 분열과 대결을 거듭해 왔다. 심지어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수반한 전쟁까지 치루었다. 이러한 역사과정을 볼 때 광복 50년을 기쁨속의 축제로 치루는데는 어딘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관계는 어떻게 바뀌어 왔고 지금의 상황속에서 미래의 남북관계 및 통일한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항일독립투쟁에서 공동목표를 가지고 공동전선을 전개했던 좌우익(민족주의세력과 공산세력)은 해방되자마자 국토분단에 맞추어 분열됐다. 특히 1946년 후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좌익과 즉각적인 통일정부수립을 내세우며 반탁을 하는 우익이 본격적으로 대립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반탁세력을 임시정부수립 협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를 고집하여 남북분단의 고정화는 기정사실로 여겨졌다. 융합될 수 없었던 좌우익은 각기 남북에 정부를 세웠다. 1950년 6.25 남침전쟁으로 분단고착화는 더욱 확고해져 갔다.

‘통일 한국’ 앞당기는 준비

전쟁으로 철저히 대결적인 분열을 한 남북한은 1972년 7월 통일원칙(자주, 평화, 대단결)에 합의함으로써 제한적인 대결 즉 다수 누그러진 냉전적 분열을 하는 시대로 넘어 갔다. 이 성명이 있은 뒤 몇년간은 아주 제한된 교류까지 하여 남북간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적어도 1984년 9월 북으로부터 수재물자 제공이 있기까지는 그러했다. 수재물자교류가 있는 뒤 남북한 관계는 다소 개선되었다. 1992년에 남북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

한 합의서가 교환되고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있음으로써 남북관계는 대 전환점을 맞았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제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천화는 없다. 작년부터는 오히려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길로 되돌아 가고 있는 듯 보인다. 북한은 남한당국을 고립, 타도하기 위한 목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공존 교류 협력’ 선행돼야

남북한 관계가 악화되자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쌀제공에 지나칠 정도의 적극성을 보였다. 쌀제공으로 얻어붙은 남북관계는 풀이거렸다. 생각에서라고 풀이된다.

그러나 쌀제공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교류를 시키지 않게 서든 남북은 북쪽을 너무 인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비방선전이나 고립화 행동이나 민

관분열노력이 계속되고 오히려 어처구니없는 돌출행동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문제까지도 남한측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미국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미 이간과 한국 따돌리기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김대통령은 광복 5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평화를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하고 주변국은 평화에 협력토록 하며 남북합의가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했다. 북한은 민족문제의 ‘자주해결’을 포기하지

주장했으나 평화문제도 미국과 해결해야 한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명은 뜻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반세기를 ‘변영된 통일조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적어도 두 가지 일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단계를 넘어 복지국가화를 진행시키고 있는 남한은 21세기초에 그것을 완성하고 번영 국가의 단계로 가급적 속히 접어들도록 노력하고 북한은 산업화를 완성할 수 있는 내외 협력을 얻기 위한 개혁, 개방을 하루 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공존 교류 협력’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화해통합’ 단계를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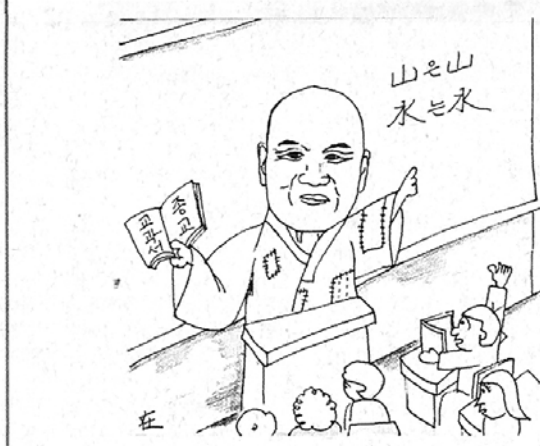
공존(평화)과 사회적 통일 현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당국뿐만 아니라 민간의 노력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남북불교의 교류와 협력은 통일(사회화)행동으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민 병 천 (前 동국대 총장)



김형중 <영성여고 교법사>



◇작가 사정으로 현 대인명 쉼니다.

광복-분단 50년 종교인 평화통일선언문

우리 민족이 일제의 폭압정치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은 지도 어언 반 세기가 지났지만, 광복의 기쁨을 누리기도 분단의 시련과 냉전의 상처로 얼룩져버린 지난 세월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운명의 멍에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독립의 기쁨은 동족상잔의 슬픔으로 변했고, 민족 자주성의 꿈은 민족 분열의 함정 속에 매몰되어 민족정기의 소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미완의 광복으로 초래된 분 단시대의 비극인 것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완의 광복만을 탓할 수는 없다. 이제 광복 50년은 과거 어둠의 절곡을 벗어 버리고 민족사회의 진정한 광명을 되찾는 험난 새출발의 원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단의 어둠이 우리 한민족의 강인한 생명력과 빛나는 문화 전통을 더이상 덮어 누를 수는 없다. 해방 50년, 분단 50년의 8.15 광복절이 바로 21세기 통일민족사회를 향한 진 군의 나팔소리로 힘차게 울려 퍼져야 함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 동안 평화를 사랑하고 지켜온 민족이다. 우리 모두는 이 고귀한 전통을 거듭 확인하며, 허리를 동강낸 분단의 슬픈 유 산을 과감하게 청산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금 깨우치고자 한다. 분단은 땅만 갈라 놓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갈라 놓았고, 철조망만 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게 만들었다. 우리는 광복 50년을 맞아 분단의 벽을 허물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 는 동시에 상호불신과 두려움으로 높게 쌓아 올려진 마음의 장벽을 허 물기 위해 온갖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사상과 종파를 뛰어 넘 어 한마음으로 3·1 독립운동을 펼친 소중한 역사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분단 이후에도 우리 종교인들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체제와 이

념의 벽을 뛰어 넘은 인도주의적 만남을 계속해 왔고, 이를 통해 갈라진 남북의 형제와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도록 만드는 통일의 길을 열어 왔다. 이는 겨레의 하나됨을 인도하는 역할인 동시에 민족을 살리는 생 명의 길이였다. 우리 종교인들은 갈라진 민족사회에 통일의 광명을 비추는 이같은 선구자적 역할을 한 순간도 망각할 수 없으며, 어떠한 난 관이 닥치더라도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종교인들은 자주, 평화, 민족대 단결의 3대 원칙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 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배우 고 닦는 사랑의 통일, 남과 북이 서로를 새롭게 만드는 창조적 통일, 남 과 북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공존공영의 통일이 되어야 함을 7천만 민 족 앞에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 종교인들은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되살아나는 통일이 되도록 하 기 위해 인도주의적 원칙이 정치적, 경제적 목적에 우선해야 함을 강조 하는 동시에 ‘강자의 이익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분단과 대립의 공포 에서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벅찬 ‘약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일’이 되어야 함을 호소하고자 한다. 통일이 또다시 강자의 이익 다름에서 비롯 되고 강자의 승리로 귀결되고 만다면, 결국 민족사회의 분열만을 낳게 되어 통일은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에 항거하고, 분단을 고착 화하려는 내외의 책동에 끝까지 맞서며, 분단을 빙자한 모든 폭력과 극 단주의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광복 50년의 참 뜻을 되살려 미완의 광복을 평화통일로 승화시키는 민족의 성업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동시에 증오와 불신을 참된 화해와 믿음

으로 두려움과 무관심을 참된 이해와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통일성업의 제단에 민족자주와 영혼한 민족 정기의 햇살을 밝혀 21세기 통일민족 사회의 미래를 여는 민족사 창조역의 여명이 도래함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토록 지고한 목적을 달성할 통일성업의 실천강령을 제 시함과 아울러 남북의 종교신앙인과 7천만 민족 모두가 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이다.

**실천강령**

하나, 남북 종교인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남북한 사회의 자주성 고양과 도덕적 회복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분단의 상처 치유에 앞장 서고 대화의 노력을 계속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의 위험에 항거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남북합의서 실천에 앞장 선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꾸준히 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민족의 화해와 재일치의 선구자가 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종파적 경쟁을 지양하고 인도주의적 사업에 주력한다.

하나, 남북종교인은 신앙의 자유와 민간교류를 저해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남북 종교인은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앞장 선다.

광복 50주년 8월 15일